

금속노조 총파업 교육지

교육지 5호
2019. 7. 15(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5(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02-2670-9555 FAX.02-2679-3714 kmwu@jinbo.net

7.18 총파업으로 노동개약 저지하고 '19년 임단투 승리 쟁취하자!

최저임금 참사, 다음은 노동개약이다

2020년 최저임금이 제도 도입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약,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이런 결정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거스른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가격 상승 등 불로소득이 최고수준으로 늘어나고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은 쌓여가는 추세 속에서 이루어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폭탄’이라며 “인상 자체가 독”이니 재심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찌감치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며 ‘반노동 친자본 정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노동문제만큼은 ‘여야합작’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 이후는 노조법 개약,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약 등 ‘노동개약’일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제물로 삼아 개원한 국회는 7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원회회를 열고 노동개약 관련 법률들을 다루고, 7월 18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7월 16일 14시 국회 앞에서 ‘노동개약저지 국회 대응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7월 18일에는 1차 시기집중 총파업 투쟁과 더불어 총연맹 ‘노동개약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에 지역별로 참여한다.

가자! 총파업으로

- 7/16(화) 14시 국회 앞 노동개약저지 결의대회
- 7/18(목) 전국동시 1차 시기집중 총파업 및 총연맹 총파업대회
- 7/24(수) 지부 및 지회별 2시간 이상 파업 전개 후 19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 8/14(수) 19년 투쟁 승리 교섭보고대회
- 8/21(수) 2차 시기집중 공동파업 및 지부별 총파업대회
- 8/28(수) (중앙교섭 미타결시) 3차 시기집중 파업



쟁의행위 찬반투표 87.4%, 조합원들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204개 사업장에서 ‘2019년 입단투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87.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된 6만여 명의 조합원들은 7월 18일부터 ‘2019년 입단협 투쟁 승리!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확대! 조선 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기조로 시기집중 1차 파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법인분할에 맞서고 있는 한국지엠지부, 재벌특혜 밀실매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산별전환 이후 처음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대우조선해양지회에서는 90%가 넘는 찬성률이 나왔다.

불법주총 법인분할 이후 재벌개혁과 노동자 생존권 사수의 최전선에 있는 현대중공업지부는 7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통해 최저임금 쪼금수와 임금 동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측에 맞선 현대자동차지부는 사측이 상여금 월할 지급을 강행하거나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자본의 노동탄압, 임금·복지 축소 개악, 조선산업 구조조정 폭주를 저지하자!



정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더욱 확실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 조합원 모두가 하나의 단결된 대오로 노골적인 노동탄압을 분쇄해야만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을 ‘최저임금 1만원’으로 돌려내고, 전면적인 노동계약 공세에 맞서 ‘노동기본권 확대’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힘 있게 이뤄내야만 한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위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투쟁과 밀실협상과 재벌특혜로 얼룩진 대우조선 매각저지투쟁, 성동조선 회생을 위한 투쟁 등 당면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저지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7.18 총파업과 7~8월 총력 투쟁을 통해서 금속노조는 2019년 입단투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조직된 강력한 힘으로 제조업 위기론을 빌미로 복지축소와 임금체계 개악을 요구하는 자본에 맞서 생활임금을 쟁취해 나가자.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하기 위해 중앙교섭을 파국으로 몰고 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압박하여 중앙교섭을 승리로 타결시키자. 나아가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과 산별임금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도 다져나가자.

<금속노조 7월 18일 파업 방침>

- 금속노조는 7월 18일(수) “2019년 입단협 투쟁승리! 노동탄압분쇄! 노동기본권확대! 조선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하청불공정거래 개선” 기조로 시기집중 1차 파업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개최되는 “노동기본권 확대! 노동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결합한다.
- 쟁의권을 확보한 단위는 4시간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하고, 쟁의권 미확보단위는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다.